

#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삶을 사는 기독교방송 변상욱 앵커 사람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글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삶을 사는 사람, 기독교방송(CBS) 변상욱(49) 부국장. CBS에서 매일 아침 <뉴스로 여는 아침>을 진행하는 앵커인 그가 간결하고 소박한 삶을 뜻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인생철학을 터득하게 된 데는 특별한 책 읽기 비법이 숨어 있다. 기독교방송 자료실에서 만난 변상욱 부국장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한 짐이더라”면서, 큼지막한 여행 가방에서 요술을 부리듯 책 한 권씩을 꺼내 들었다. 언론비평서인 <언론 가면 벗기기>의 저자이면서 <아빠 뒤편> 공저자인 그가 동양철학과 종교철학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음알음 들었던 차였다.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그를 찾으려면 근방 서점에 가면 된다. 구석진 곳에서 독서삼매에 빠져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 서점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는 점찍어 놓은 책을 한쪽 귀통이에 쌓아 놓고선 오다가다 책장을 넘긴다.

“누가 이런 책을 읽겠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만하게 제본을 뜯 검도 관련한 책들을 보여준다. 12년 동안 검도를 해 온 그는 신림동의 한 검도장 사범이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장에, 중학교 때는 유도장에 나갔고, 군대에서는 특공무술 조교를 했어요. 검도를 하는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왜 주먹이나 칼을 휘둘러 왔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방송사 부국장 정도면 골프 치면서 사회적 인맥을 넓혀가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테지만, 스스로 고백하는 대로 그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왔다.

“내면적인 문제나 삶의 원리를 깨우친다고 안으로

만 천착했었기 때문에, 기자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나 관료들도 만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살았죠. 오십이 가까이 오면서부터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빛을 झा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개 조직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경영 대학원에 진학한다거나 MBA 코스를 밟는 게 정규모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그는 서당에서 공부한다. 까다로운 면접을 거쳐 들어갈 수 있다는 ‘동유학회’라는 서당에서 일주일에 세 시간씩 <대학>과 <논어>를 공부한 지 1년이 넘었다.

책을 읽는 습관은 한 인물에 빠지면 그가 지은 책을 모조리 찾아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아무개’라는 필명을 가진 이현주 목사이다.

모든 종교철학을 책으로 섭렵한 그가 깨달은 비는 “그래봤자 몇 걸음 앞에 가지 못했더라”는 것이다. <깨달음 이후 빨랫감>이라는 책 제목처럼 도를 깨우쳐 봤자 인간이라면 밥 먹어야 하고, 화장실에 가야하고, 빨래해야 하고, 아이들 과외공부 시켜야 하고, 과외공부 시키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인생이다. 그가 이 책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에는 자기의 길을 걸어와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낸 사람들이 부닥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 어느 성인이 제자에게, 성경책을 몇 번 읽었냐고 물었대요. 제자가 답하기를 수십 번도 더 읽었죠,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스승께서, 그럼 성경책은 너를 몇 번이나 읽었느냐, 하고 다시 물자 제자가 그 순간 깨우쳤대요. 내가 책을 독파하고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 실린 진리와 뜻이 나의 삶을 관통해 독파하고 꼼꼼히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내가 읽은 책 한 권이 나의 삶을 읽어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가 읽어 온 책들이 곧 그가 살아 온, 살아 갈 삶이다. **한글**

